



평생 결핵환자 곁을 지키 참된 의학자 한용철

글 김대규(대한결핵협회 고문)

무급조교로 결핵과 인연

죽는 날까지 결핵퇴치사업을 하는 것이 소망이라며 70평생을 우리나라 항결핵운동에 헌신한 한용철(韓鏞徹)은 다재다능한 의학자로서 폭넓은 삶을 살다 간 의학계의 기린이었다.

귀공자풍의 용모와 세련된 매너, 그리고 굵은 안경테 너머로 바라보는 부드러운 서도 재기 넘치는 시선이 인상적인 그는 1930년 1월 20일 자자손손 17대가 살아온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의 생가는 사직공원이 가까운 종로구 필운동 84번지의 한옥이며 부친 한규명(韓圭明)과 모친 박복인(朴福仁) 사이의 6남매 중 외아들이었다.

매동국민학교와 경기중학을 거쳐 1949년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했으며 의예과 2학년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군에 입대하여 민기식(閔機植) 사단장 휘하의 5사단에서 통역장교로 1년 반 복무하고 복학했다.

1956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그는 바

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내과에 무급조교로 들어갔는데 은행원 출신의 부친이 사업에 실패하여 영어 번역 등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조달해야 했으며 당대의 결핵대가였던 김경식(金敬植) 교수의 지도 아래 내과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결핵환자를 진료하면서 결핵을 전공할 것을 결심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1959년 8월부터 2년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결핵을 공부하고 돌아왔으며 1962년 10월 전임강사로 임명되었다. 가난한 무급조교 시절부터 1994년 정년을 얼마 남겨 놓고 삼성의료원 초대원장으로 옮겨갈 때까지 38년간 호흡기내과를 이끌면서 학교 부설 결핵연구소장과 서울대 보건진료소장, 내과 주임교수와 내과 과장을 역임하고 1986년부터 4년간 서울대 병원장으로 일했다. 병원장 시절 그는 그 방대한 살림을 맡아 과감한 운영개선과, 교수 해외연수 및 대단위

연구 확대, 첨단 장비 및 기술의 도입과 개발 등 교육, 연구, 진료 기능의 극대화를 추구했다. 또한 1987년에는 초유의 노사분규도 원만히 수습하여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을 고수하면서 병원 노사관계 정립의 선례를 남기는 등 원숙한 경영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병상에 눕기까지 40여 년간 한시도 결핵환자 곁을 떠난 적이 없으며, 그 바쁜 병원장 시절에도 나를 찾아오는 환자를 외면할 수 없다며 꼭 외래 진료시간을 챙기고 직접 진료했다.

1967년 조교수 때 대한결핵협회 이사로서 선임된 이래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하면서 민간 항결핵운동에 앞장섰다. 특히 16년간의 회장 재임 중 세 차례의 전국 결핵실태조사와 획기적인 6개월 단기화학요법의 완성, 정부로부터의 BCG 생산업무 이관과 국내 전체 소요량의 생산 공급 달성, 선진국만 참여하는 TSRU 즉 국제결핵정보조사기구 가입과 서울회의 개최, 결핵 연구원의 신축이전과 기능 확대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결핵관리 기술지원과 국제결핵관리간호사 훈련과정 개설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한 업적은 1965년부터 30년 사이 우리나라의 결핵유병율을 5.1%에서 1.03%로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를 국가결핵관리 모범국으로 평가하고 매년 개발도

상국의 훈련생을 보내오기도 했다.

4. 삼성의료원의 창립

그가 남긴 또 하나의 업적은 초대 삼성의료원장으로서 불친절과 기다림의 대명사였던 병원문화를 확 바꾸어 환자 중심의 병원운영시스템을 창출하고 정착시킨 성과를 꼽을 수 있다.

주니어 스태프의 해외 연수와 PACS, 임상병리검사 자동화시스템, OCS 등 최첨단 진료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고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삼성의료원의 위상은 가장 친절 한 병원, 가장 빠르고 편안한 병원으로써 각인되기 시작했으며 그 여파는 곧 국내 병원계에도 파급되어 우리나라의 병원문화를 한차원 끌어올리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가 떠난 지금도 삼성의료원의 고객만족도는 매년 1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결핵학회와 내과학회 회장도 지내고 1987년부터는 한국심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선천성 심장병어린이 1만5천 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여 새 삶을 찾게 하고 언청이와 신장이식 등 타질환 환자와 중국 조선족 어린이에게까지 지원의 손길을 넓히는 데 앞장섰다.

그의 좌우명으로 항상 책상머리를 지켰던 잠보장경(雜寶藏經)의 무재칠시(無財七施)는 돈 없이도 베푸는 일곱 가지 덕행을 말함인데 불교신자이기도 한 그는 이

자비심을 일깨운 좌우명처럼 부드러운 얼굴과 자상한 말씨와 다정한 눈빛과 넉넉한 마음으로 환자와 이웃과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의학자의 길을 걸어 온 진정한 인술의 사도(使徒)였다.

그는 병원 문을 들어설 때 수위에게 꼭 먼저 인사말을 건넸으며 어떤 계층의 사람과도 금새 가까워지는 친화력의 소유자였다.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폭넓은 교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넓은 안면을 통하여 잘 해결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는 해결사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다.

유력인사들이 아프면 우선 서울대 병원을 찾게 되고 대부분 내과 질환이기 때문에 내과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내과에서 뼈대가 굵고 내과 과장과 병원장까지 지냈으니 누구라고 하면 금방 알만한 사람들이 그의 환자였고 많은 유명인사들의 주치의 노릇도 하게 되었다.

조교수 시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중앙정보부장 L씨가 입원을 했는데 주치의인 한심석(韓心錫) 내과과장이 하루는 “한 군, 저 양반 한 번 봐, 도무지 원인을 모르겠어” 해서 L씨의 병실로 가 진찰을 하게 되었는데 증상을 살피고 문진을 하고는 대뜸 팬티를 내리라고 하고 단번에 대상포진임을 밝혀냈다고 한다. 보통 대상포진이 상반신에 발현하기 때문에 상반신만 보고 그것을 간과

했는데 그는 직관적으로 그것을 밝혀냈다. L씨는 짧은 의사가 자기의 병을 명쾌하게 밝혀낸 것에 감동하여 그 후로는 한용철만 찾고 주변 유력인사들에게 널리 그를 소개했다.

3년간 대통령 주치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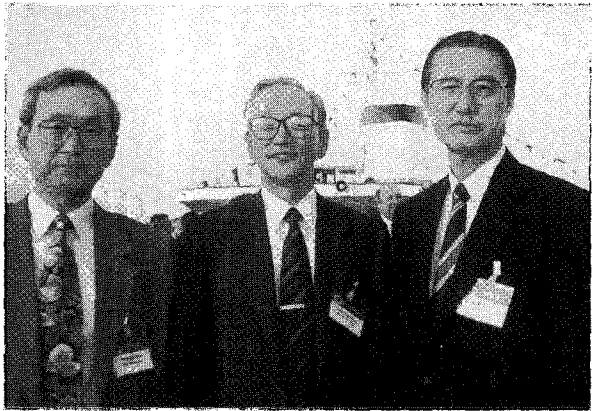
한용철은 1983년 10월 아웅산 참사로 순직한 절친한 친구 민병석(閔丙奭) 교수의 뒤를 이어 전두환 대통령의 주치의가 되었는데 대통령 개인의 치적과는 관계없이 국가 원수의 주치가 되었다는 것은 의사로서는 큰 명예이기도 하다.

해외학회 참석 관계로 주치의 자리를 비운 1주일간 민교수의 부탁으로 비상 대기한 적이 있는데 아웅산 사건으로 대통령이 급거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지난번처럼 비상 대기해 달라는 전갈이 왔고 그것이 대통령 주치의 발령으로 이어졌으며 그 후 3년여 대통령의 건강을 돌보았다.

부인 양영옥(梁榮玉) 여사와는 1957년 결혼했는데 이대 약대를 갓 나온 순진한 처녀를 어느날 갑자기 종로 보금장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반지의 손가락 사이즈를 재는 것으로 프로포즈를 했다는 일화는 과연 그 답구나 하고 절로 미소를 짓게 한다.

1981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필운동 한옥에서 매일 밤 방방의 연탄불을 갈아넣으며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을 하늘

처럼 섬긴 부인의 내조
가 있었기에 그는 바깥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
다. 또한 부인의 요리
솜씨가 뛰어나 매년 정
초에는 어김없이 내과
의 전 스태프를 집으로
초대하여 전통 한국음
식의 진수를 맛보이며
사제의 정을 돈독히 하
는데 일조했다. 그 연
례행사는 삼성의료원
장으로 옮긴 후까지 30년간 계속되었다.



1984년 6월 14일 독일 마인즈에서 개최된 제 28회 IJATLD 국제회의 직후, 라인강 선상 리셉션에서 좌로부터 김성진 박사, 한용철 회장, 필자. 이로부터 3년 4개월 후 한회장은 폐암진단을 받았다.

낭비없는 능률적인 삶

남들이 부러워할 국내 굴지의 병원장과 학회장, 단체장, 대통령 주치의 등 화려하고 굵직한 직함을 누리면서도 그는 검소한 생활로 일관했다. 공부도 잘했고 일도 잘하며, 놀 때는 놀 줄도 아는 전천후 재능을 가진 의학자로서 인생을 낭비없이 가장 능률적으로 살다가 그 지혜와 근면성은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두주도 불사했지만 결코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아침 여덟 시면 어김없이 원장실에 앉아 있는 그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번도 아파서 결근한 적이 없는 그는 1997년 10월 뜻밖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것은 청천벽력이었다. 평생을 폐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헌신해 온 폐박사였

기에 충격과 놀라움은 더욱 컸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였고 방문객에게 농을 거는 여유도 보였다. 투병도중 한 때 증세가 호전되어 미국 학회에 다녀오기도 했지만 1999년 3월 13일 삼성의료원 병실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70세의 삶을 마감했다.

3월 16일 삼성의료원장으로 영결식을 마친 그의 유해는 그가 젊음을 바쳤던 연건캠퍼스 시계탑을 돌아 화장되었으며 유해는 능인선원에 안치되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양영옥 여사와 SK CNC 상무인 장남 범식(範湜)과 SK 텔레콤 과장인 차남 중식(重湜), 그리고 장녀 영미(玲美)가 남편을 따라 미국에서 살고 있다.

국민훈장 무궁화상을 수상했으며 임상 호흡기학과 수상집 서울에서 펴는 꿈 등 저서와 논문 200여 편을 남겼다. 卍